

곡성군 문화·관광 VR콘텐츠 구축 '속도'

전남정보문화진흥원 공모 선정 국비 1억5000만원 추가 확보 섬진강기차마을 체험존 확대

곡성군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문화·관광 VR(가상현실) 콘텐츠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23일 곡성군에 따르면 군이 최근 (재)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주관한 2018 전남 지역기반게임육성사업 양산·고도화 제작지원 사업에 선정돼 섬진강기차마을 레일바이크 VR체험존 구축에 탄력을 받게 됐다.

군은 지난해부터 4차 산업혁명에 발맞춰 주요 산업 중 하나인 VR 콘텐츠를 관련 업체와 개발해 스포츠·관광 분야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했으나 예산 문제로 양질의 콘텐츠를 제작할 수 없어 한계에 부딪혔다.



군은 지난 5월부터 섬진강기차마을 내에 레일바이크 VR체험존을 운영해 관광객에게 호응을 얻고 있다. 레일바이크 체험존. <곡성군 제공>

군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1차 공모사업에 지원해 1억 2000만원의 국비를 확보했으며 이후 업체

와 공동 개발을 추진해 섬진강기차마을 내에 레일바이크 VR체험존을 조성했다. 군은 또 체험존 조성 이후에도 업체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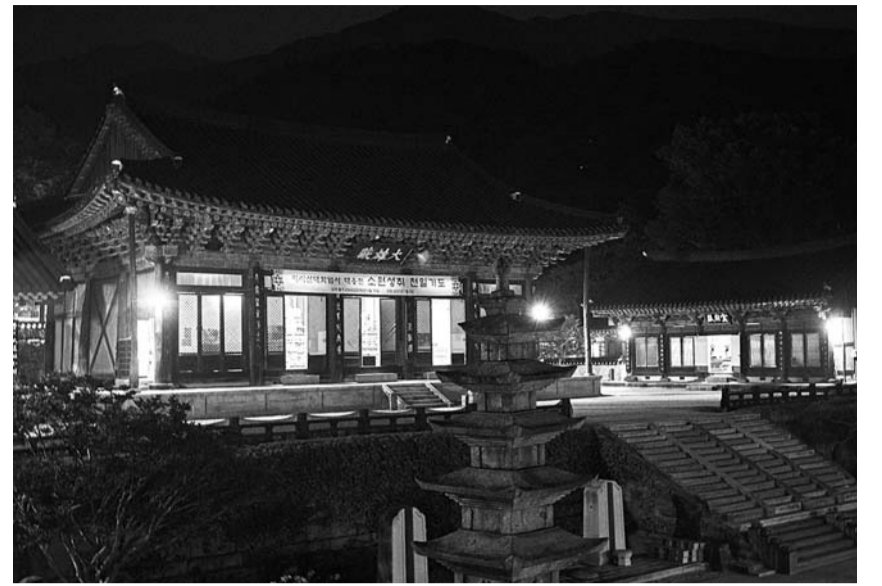
시스템 운영상의 문제점을 꾸준히 점검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최근 공모에 지원한 결과 1억5000만원 내외의 국비를 추가 확보했다.

이에 앞서 군은 섬진강기차마을의 성수기인 지난 5월부터 VR체험존을 주말에 무료로 운영하면서 관광객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다.

VR체험존이 2명의 VR 시뮬레이터가 레일바이크 페달을 굴리며 가상현실에서 경주하도록 구성돼 게임과 체험적 요소가 가미된 지역특화 콘텐츠로 관광객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는 게 군의 설명이다.

곡성군 관계자는 "추후 고도화된 VR시뮬레이터 2기와 VR체험기기 3대를 추가 구매해 VR체험존을 확대 조성할 예정"이라며 "이번 공모사업 선정을 바탕으로 가상현실 콘텐츠 분야에서 우위를 선점하고 섬진강기차마을의 관광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곡성=김계중 기자 kjkim@kwangju.co.kr



구례 지리산 자락에 자리잡은 화엄사가 오는 8월20일까지 사찰을 야간에 개방한다. <구례군 제공>

구례 화엄사 8월 20일까지 야간에도 개방

구례군은 지리산 화엄사(華嚴寺)가 오는 8월20일까지 사찰을 야간 개방한다고 23일 밝혔다.

야간 개방은 오후 10시까지이며 지리산과 화엄사를 찾는 관광객을 위한 조치다.

구례군 마산면에 있는 화엄사는 국보 177호로 가장 많이 보유한 사찰로 4점의 국보

와 8점의 보물 외에 다수의 문화재가 곳곳에 자리하고 있다.

주지 덕문 스님은 "여름 한낮의 뜨거운 열기에 지친 몸과 마음을 쉬어가시기 바라는 마음으로 야간 개방을 준비했다"며 "산사의 고즈넉함과 함께 살아 숨 쉬는 우리 문화재의 향기를 느끼시길 바란다"

고 말했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

보성 태백산맥박물관 전국 백일장대회

9월 13일... 개관 10돌 기념
8월 17일까지 3개 분야 접수

보성군은 9월13일 태백산맥박물관에서 '태백산맥 전국 백일장대회'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백일장대회는 태백산맥 개관 10주년을 기념해 조정래 작가의 시대사상과 문학 혼을 계승하고 지역 문화발전을 위해 열린다.

참가대상은 전국 초·중·고등학생으로 응모부분은 운문, 산문, 그리기 등 3개

분야다. 백일장 대회 장소는 참가 신청 시 선택한 소설 태백산맥 속 배경지 10개소다.

참가를 원하는 학생들은 8월17일까지 보성군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해 보성군청 문화관광과, 태백산맥문학관으로 방문 또는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보성군 관계자는 "소설 태백산맥을 읽고 느낀 감동을 함께 나누는 이번 백일장 대회에 전국 학생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보성=김용백 기자 kyb@kwangju.co.kr

전남신보 보성 특별재난지역 특례보증

집중호우 피해 소상공인
최대 7000만원까지 융자

전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최형천·이하 전남신보)은 지난 달 내린 집중호우로 보성읍과 회천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정됨에 따라 23일부터 재해기업에 대한 특례보증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전남신보는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위해 특례보증 긴급 지원을 결정하고 보성군 등 유관기관과 협력을 통해 복구 지원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특례보증 지원대상은 집중호우 피해 소상공인이며 지자체에서 발급한 '재해 중소기업확인증'이 필요하다. 자금 지원 한도는 최대 7000만원이며 보증료는 일반보증의 10% 수준인 연 0.1%로 파격 적용된다. 또 연 2% 고정금리로 자금을 이용할 수 있다.

/보성=김용백 기자 kyb@kwangju.co.kr



오색 벼로 그린 곡성 백세미와 토란 곡성군 석곡농협은 최근 석곡면 능파리 8000여 평의 논에 오색 벼를 이용해 그림을 그렸다. 기존 녹색벼를 뽑아내고 그 자리에 다양한 색의 벼를 손모내기하는 방식으로 만든 이 작품은 관광 곡성의 상징인 '증기기관차'를 비롯해 곡성명품쌀 '백세미', '곡성 토란' 등을 표현했다. <곡성군 제공>

고흥우주천문과학관 여름 휴가철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고흥군 우주천문과학관은 오는 8월19일까지 여름 휴가철에 맞춰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고흥우주항공축제 기간(7월28일-8월1일)에는 4시간 조기 개장해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축제시작일인 28일 새벽 개기월식이 진행됨에 따라 전날 오후 10시부터 특별 개장한다.

8월17일(음력 7월 7일)에는 견우와 직

녀가 만나는 '칠월 칠석'의 의미를 살려 별자리 특별 관측회도 마련한다.

고흥 우주천문과학관은 우리나라 최대급의 800mm 반사 망원경과 동영상관을 보유하고 있어 우주의 신비를 생생하게 관측하고 체험할 수 있다.

별을 볼 수 없는 낮시간에는 천문과학관 2층 전시실과 3층 전망대를 둘러봐도 좋다.

2층 전시실에는 앙부일구 등 고천문기기와 태양계체계, 용오름현상을 체험할

수 있는 기계가 설치되어 있다. 또 1943년 고흥 두원에 낙하한 운석모형이 전시되었고, 핸드폰으로 천문과학관 앱을 다운받아 증강현실(AR) 체험도 할 수 있다.

3층 전망대에서는 다도해의 아름다운 경관을 한눈에 감상할 수 있으며 특히 삼시세끼 촬영지인 득량도도 볼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고흥군 관광과로 연락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고흥=주각중 기자 gju@kwangju.co.kr

경매 투자

- ▶경매 특수비법 배우면서 투자 하실 분!
- ▶특수물건만 취급
- ▶단독, 공동투자 가능
- ▶자본금 1억원 이상
- ▶월 15% 이상 수익
- ▶소유권/근저당으로 보장

(주) 오 천 경 매
상담예약. 010-3605-5000